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 다음 글을 읽고 해석하시오.

강호(江湖)에 병이 깊어 죽림(竹林)에 누웠더니
 관동(關東) 팔백리(八百里)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갈수록 망극(罔極)하다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節)이 알피 섰다
 평구역 물을 그라 흑수(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嶽)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궐(東洲) 밤 계오 새와 북관정(北寬亭)의 올라흐니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峰)이 흐마면 피리로다
 궁왕대궐(弓王大闕) 터희 오작(烏鵲)이 지저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는다 몰으는다
 회양(淮陽) 네 일홈이 마초야 그틀시고
 급당유(汲長孺) 풍치(風采)를 고터 아니 볼 계이고
 영중(營中)이 무스(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인 제
 화천(華川) 시내길히 풍악(楓嶽)으로 버더 잇다
 행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經)의 막대 디퍼
 백천동(百川洞)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
 은(銀) 그튼 무지계 옥(玉) 그튼 룡(龍)의 초리
 섰돌며 썸는 소리 십 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대(金剛臺) 밍 우층(層)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 즈음을 씨뎡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대(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비는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썬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갓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눙홀시고 망고대(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겁(千萬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그튼니 또 잇는가
 기심대(開心臺) 고터 올라 동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 이천 봉(萬二千峰)을 너너히 혀여흐니
 봉(峰)마다 밋쳐 있고 곳마다 서린 괴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들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世)도 하도 할샤

턴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自然)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홀샤
 비로봉(毗盧峯)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냐 눙뎡던고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턴하(天下) 엇찌흐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그늘 길로 스자봉(獅子峯)을 차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되어세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러 이셔
 듀야(晝夜)의 홀너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외나모 빠른 드리 불등대(佛頂臺) 올라흐니
 천심절벽(千尋絕壁)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슈 한 구비를 촌촌히 버혀 내여
 실그티 플터이셔 비그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 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덕선(李謫仙)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녀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흐려니
 산등을 미양 보라 동희로 가자스라
 남녀완보(藍輿緩步)흐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라흐니
 녀농벽계(玲瓏碧溪)와 수성데도(數聲蹄鳥)는 니별(離別)을 윈
 (怨)하는 듯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식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섰부니 흥운(海雲)이 다 것은 듯
 명사(鳴砂)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할 것티 두고 희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백구(白鷗)야 느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는
 금난굴(金欄窟) 도라 드러 총석정(叢石亭) 올라흐니
 백옥누(白玉樓)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슈(工叢)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드문가
 구타야 녹면(六面)은 므어슬 상(象)뎡던고
 고성(高城)을란 더만 두고 삼일포(三日浦)를 츠자가니
 단서(丹書)는 완연호되 스선(四仙)은 어디 가니
 에 사흘 머믄 후(後)의 어디 가 또 머물고
 선유담(仙遊潭) 영랑호(永郎湖) 거긔나 가 잇는가
 청간정(淸澗亭) 만경대(萬景臺) 몇 고터 안뎡던고
 니화(梨花)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흐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녹룡(六龍)이 바퇴는 동

바다히 썩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턴둥(天中)의 티셔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시선(詩仙)은 어디 가고 히타(咳唾)만 나맛느니
 턴디간(天地間) 장(壯)흔 괴별 즈셔히도 흘셔이고
 사양현산(斜陽峴山)의 덕둑(躑躅)을 므니블와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로 느려가니
 십리(十里) 빙환(氷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당송(長松) 울흔 소개 슬크장 퍼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고주희람(孤舟解纜)하야 덩즈(亭子) 우히 올라가니
 강문교(江門橋) 너른 겨터 대양(大洋)이 거기로다
 동용(從容)하냐 이 괴상(괴상) 활원(闊遠)하냐 더 경계(境界)
 이도곤 ㄱ즌 더 썩 어디 잇닷 말고
 홍장(紅粧) 고스(古事)를 현스타 흐리로다
 강능(江陵) 대도호(大都護) 풍속(風俗)이 도흘시고
 절효정문(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 홀다
 진주관(眞珠館) 독서류(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느린 물이
 태백산(太白山) 그림재를 동히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의 목떡(木覓)의 다히고져
 왕덩(王程)이 유흔흐고 풍경(風景)이 못 슬미니
 유희(幽懷)도 하도 할샤 객수(客愁)도 돌 디 업다
 선사(仙槎)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하살가
 선인(仙人)을 츠즈려 단혈(丹穴)의 머므살가
 턴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덩(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뒤라셔 놀래관디
 불거니 썩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어 녹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당턴(五月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풍랑(風浪)이 덩(定)하거늘
 부상지척(扶桑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다리니
 서광천당(瑞光千丈)이 봐는 듯 숨느고야
 주렴(珠簾)을 고터 것고 옥계(玉階)를 다시 쓸며
 계명성(啓明星) 돛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흔 가지를 뒤라셔 보내신고
 일이 뎡흔 세계 늑대되 다 뵈고져
 뉴하쥬(流霞酒) ㄱ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디 가며 스선(四仙)은 괴 뒤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샤 하니
 선산 동히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풋즘을 얼푯 드니
 꿈애 흔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더를 내 모르라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딩경(黃庭經) 일자(一字)를 엇디 그릇 닐거 두고
 인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쌀오는다
 저근덧 가지 마오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

북두성 기우려 창희슈(滄海水) 부어 내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낭익(兩腋)을 추혀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케 밍근 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썩 흔 잔 하쟈고야
 말 디자 학을 톡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쇼(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끼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ㄱ인들 엇디 알리
 명월(明月)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천 더 업다
 - 정철, 「관동별곡」 -